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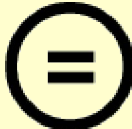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책거리의 다시점, 현대예술의 몽타주와
이중노출 기법을 이용한 욕망표현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6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지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책거리의 다시점, 현대예술의 몽타주와
이중노출 기법을 이용한 욕망표현 연구

Study of the Expression of Desire using Multiple Viewpoints
of Chaekgeori, Montage and Double-exposure Technique of
Modern Art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지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책거리의 다시점, 현대예술의 몽타주와
이중노출 기법을 이용한 욕망표현 연구

Study of the Expression of Desire using Multiple Viewpoints
of Chaekgeori, Montage and Double-exposure Technique of
Modern Art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지 현

이 지 현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책거리의 다시점, 현대 예술의 몽타주와 이중노출 기법을 이용한 욕망표현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지 현

책거리는 민화의 한 장르로서 쌓아놓은 책더미와 문방사우(文房四友)등을 적절히 혼합해서 배치한 정물화풍의 그림이다. 조선시대 가장 많은 인간의 염원(念願)과 소망(所望)을 나타낸 회화가 민화라면, 그중에서도 책가도(冊架圖), 문방도(文房圖), 책탁문방도(冊卓文房圖)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책거리는 책과 문방류 뿐 아니라 각종 기물(器物), 그릇, 채소 및 과일 등을 소재로 삼아 선비들의 사랑방 정경이 나타난 그림으로 이를 통해 조선시대 문인들의 취향과 더불어 당시의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부터 민화책거리가 대중화되면서 책과 함께 다양한 기물을 그려 부귀(富貴), 건강(健康), 장수(長壽), 다산(多産), 화합(和合), 소원성취(所願成就) 등의 염원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所望)에서부터 부귀영화(富貴榮華)를 꿈꾸는 대중들에게 까지 기복축사(起福逐邪)의 주술적(呪術的) 의미를 내포한 상징적인 그림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책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한 조형적 특징이 있는데, 채색에서는 음양

오행(陰陽五行)의 이론에 따라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정하는 오색(五色)과 방위(方位)를 정하는 동양철학적 색채화법이 사용되었고, 구도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에 다양한 시점이 공존하여 복합적인 관념적(觀念的)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다시점(多視點)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점(多視點)은 나와 우주만물은 하나라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동양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회화를 공부한 연구자가 본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저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전통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반복적이고 과장된 형상과 때로는 과격적인 구성이 주는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오래된 민화에 담겨있는 대중의 염원을 오늘날 현대적 민화에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연구자는 책거리에 새로운 표현방법과 현대적 기물의 재배치와 재해석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慾望)과 염원(念願)”을 담아 새로운 표현방법을 접목하고 현대적 기물을 재해석, 배치하여 오늘날의 시대상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다.

[주요어] 책거리, 다시점, 오방색, 기복, 몽타주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접근	2
2.1 전통책거리의 욕망표현	2
2.1.1 길상적 소재와 의미	2
2.1.2 오방색과 다시점의 조형방법	6
2.2 현대의 욕망표현	13
2.2.1 키덜티즘과 치유의 욕망	13
2.2.2 몽타주와 이중노출의 결합	15
III. 작품분석	19
3.1 전통 책거리 모사 작품	19
3.1.1 정형적 책거리	20
3.1.2 비정형적 책거리	21
3.2 다양한 조형기법을 이용한 창작 작품	24
3.2.1 책거리 소재의 차용과 현대기물의 응용	25
3.2.2 전통책가도와 현대문양의 융합	26
3.2.3 현대 기물사진과 책가도 문양의 중첩	29
3.2.4 Lighting과 이중노출을 이용한 작품	33
IV. 결 론	35

참 고 문 헌	38
---------------	----

ABSTRACT	40
----------------	----



작 품 목 차

작품 1. <책거리>, 모사, 31x52cm, 옷칠지에 채색, 2008	9
작품 2. <책거리>, 모사, 30x50cm, 옷칠지에 채색, 2007	10
작품 3. <책거리>, 모사, 40x62cm, 종이에 채색, 2007	12
작품 4. <책거리>, 모사, 180x85cm, 종이에 채색, 2008	20
작품 5. <호피장막도>, 모사, 100x76cm, 종이에 채색, 2008	21
작품 6. <책거리>, 모사, 32x90cm, 옷칠지에 채색, 2009	23
작품 7. <책거리>, 모사, 32x90cm, 옷칠지에 채색, 2009	23
작품 8. <현대인의 책거리>, 20x28cm, 비단에 채색, 2015	25
작품 9. <현대인의 책거리>, 30x36cm, 비단에 채색, 2015	27
작품 10. <현대인의 책거리>, 55x40cm, 옷칠지에 채색, 2014	28
작품 11. <현대인의 책거리>, 55x40cm, 옷칠지에 채색, 2014	28
작품 12. <현대인의 책거리>, 60x42cm, 비단에 채색, 2016	29
작품 13. <현대인의 책거리>, 42x55cm, 비단에 채색, 2016	30
작품 14. <현대인의 책거리>, 43x58cm, 비단에 채색, 2016	31
작품 15. <현대인의 책거리>, 34x41cm, 비단에 채색, 2016	33
작품 16. <현대인의 책거리>, 50x43cm, 비단에 채색, 2016	33

I. 서 론

책거리는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민화의 한 장르로서 궁중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가까이 했던 실용적인 장식그림이다. 특히 조선 후기 책거리그림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크게 유행하면서 이를 통해 계층적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확산현상을 보여주는 일면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책거리 그림을 정의하면 책과 함께 우리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구성한 정물화풍의 회화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책거리는 궁중에서부터 시작되어 민화의 장르로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까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신을 거듭했고 장식적 회화의 장르를 넘어 후기에는 부귀영화나 벽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민초들의 희망과 욕망을 대변하는 그림으로 포괄적인 상징성을 나타내는 회화로 보여져 왔다.

책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 주로 책으로만 가득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양한 기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유교사상, 학문숭상과 같은 선비취향의 정형화된 모습에서, 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대중들의 길상적인 염원과 생활양식을 담아내는 정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미래 작업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총괄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II 장에서는 전통책거리의 욕망표현과 관련하여 길상적 소재와 의미 및 조형방법을 알아보았고 현대의 욕망표현에 대해서는 키덜티즘 및 몽타주와의 결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론적 고찰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함에 이해를 뒷받침하고 표현영역의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장에서는 첫째로, 정형적, 비정형적 전통책거리의 모사를 통해 책거리의 특징과 그림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였다. 둘째로는 다양한 조형기법을 이용하여 전통의 틀에 현대의 기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책거리그림이 현시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회화적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접근

2.1 전통책거리의 욕망표현

2.1.1 길상적 소재와 의미

‘정조대부터 순조대에 걸쳐 최소한 세 번 이상 출제된 ‘책거리(冊巨里)’와 ‘책가(冊架)’의 화제(畵題)는 오늘날 소위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책거리’그림과 같은 것이라 보여진다. 거리란 말의 뜻을 건다(架)로 보면 ‘책거리는 책가(冊架)의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정조가 12년(1788)9월18일에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 그림을 채점한 뒤 특별히 써서 내린 판부(判付)의 글에 보인다.’¹⁾

‘책가도는 말 그대로 책가(冊架), 즉 서가와 같은 가구를 그린 그림이다. 예를 들어 책가가 없이 책만 그린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것을 책가도라 할 수 없다. 즉, 책가도는 책가가 있는 그림을 말하지만, 책거리는 책가가 있든 없든 책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다면 책가도보다 책거리가 상위의 개념인 것이다. 또한 책거리와 책가도는 조선 후기에 ‘문방(文房)’이란 장르로 분류되었다. 책은 넓은 의미로 문방구에 속하기 때문이다.’²⁾

‘책거리는 책을 쌓아 올린다거나 열어놓고 그 주변에는 지묵필연(紙墨筆硯) 등의 문방사우(文房四友) 외에 학자의 일상 용품으로서 안경 또는 그릇, 부채, 과일, 꽃, 그밖에 시계 등의 진기한 외래품을 첨가하여 호화롭고도 기품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들은 은유적 표현으로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1)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미술자료 no66, 2001, pp.2-3.

2) 정병모,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 박물관, 2012, p.172.

민화의 상징적 표현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공통의 세계관을 매개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가령 부귀다남(富貴多男), 부귀공명(富貴功名), 무병장수(無病長壽) 등 인간으로서의 소박한 바람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민화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동경의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³⁾

책거리에서 중심이 되는 책은 학문에 대한 열망과 이를 통한 입신양명을 의미하고 책의 주변에 등장하는 기물들은 기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농업중심의 사회로 자식은 재산과도 같았다. 또한 의학기술의 부족으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다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책거리에 등장하는 석류, 수박, 참외, 모과, 포도 등은 씨앗이 많은 과일들로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여겨져 과일을 벌려 놓고 표현하여 씨앗이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또한 꽃도 자주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무병장수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였기에 이를 기원하는 의미로 여겨졌다. 모란(장수, 부귀영화), 국화(무병장수), 연꽃(생명, 창조, 번영)등이 장식되었다.

이외에도 대접이나 화병, 거북이, 등잔, 향로, 괴석, 안경 등 기복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다양한 기물과 더불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진기한 외래품도 자주 등장한다.

‘책거리 그림에 나타나는 문자도는 조선시대의 근간이었던 유교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자도가 후기로 넘어가면 기하학적이면서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된 그림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 ‘책거리 문자도’라고 칭한다. 책거리 문자도는 유교사상에서 강조하는 수, 복, 부귀 등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충, 효 등의 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유교사상의 윤리덕

3)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p.23.

목이며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문자도는 병풍으로 제작하여, 각각의 그림에는 그 문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관련된 기물이나 동식물 등의 내용이 그려지는데, 글자 획의 일부는 구성하거나, 여백에 곁들여 그려지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이 책거리 그림은 소재상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주된 상징적 의미는 수복강녕(壽福康寧),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라는 현세(現世)구복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책거리그림이 민화와 함께 대중화 되면서 학문보다는 출세, 장식보다는 기복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는 책거리그림에서 책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일이나 꽃, 다른 기물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로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다산을 상징하는 참외와 수박, 집안의 평화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화병과 모란 등은 길상적 소재들인데 이를 보면 책거리 그림은 부적같은 기복(起福)이나 발복(發福)의 염원이 더 간절히 나타난다. 책거리의 책조차도 학문에 대한 숭상보다는 입신양명(立身揚名)등 출세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는 부적과 같은 상징물로 보여지고 있다.

책거리는 민화 중에서도 산수화나 화조도와는 달리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 또 책거리의 책은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작아진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역원근법으로 그렸다. 시점 또한 특정한 시점이 없거나 여러 개의 다시점(多視點)방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책거리만의 특징인 이 독창적인 시각은 주목할 만하다.

문방과 관련된 사물 외에는 대체로 배경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며, 색채도 선명하게 마무리 지어진 것이 많다. 이쪽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저쪽으로부터 이쪽이 바라다 보이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이다.

책거리 그림은 원래 학문숭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간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세계, 학문이 주인이요, 그 위대함으로 해서 그 편으로부터

4)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pp.129-144.

인간이 조준된 것처럼 되어있는 그림이다. 서재 또는 어린이 방에 장식되었으며, 사람은 그 그림(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책상과 마주하게끔 되어있다.

‘주로 사랑방 선비의 방에 놓였던 책거리는 고매한 학력을 쌓기 위해 힘쓰는 문인(文人)들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글 읽기를 즐기고 학문의 길을 추구하던 당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고스란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예컨대 책거리에 표현된 서가(書家)에 쌓인 많은 책들은 선비들이 가장 이상으로 여겼던, 학식으로 쌓고자 했던 마음과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 남에게 자랑삼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⁵⁾



5) 송신애, <책거리 그림의 조형성과 현대적 표현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7-8.

2.1.2 오방색과 다시점의 조형방법

1) 색채

① 음양오행사상

‘음양오행사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 우주인식과 사상체계가 중심이 되어온 원리이다. 우주의 본원에 음(陰), 양(陽)의 두 기(氣)가 있다 해서 천지만물의 화성은 이 두 기(氣)로 이루어졌다는 역학적인 이론과 천문학적 철학으로 발전한 것이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이다.’⁶⁾

‘오행사상은 만물을 금(金), 목(木), 화(火), 토(土), 수(水)의 다섯 요소로 본 일종의 다원론(多元論)으로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이 음양오행의 운행변전(運行變轉)원리에 의해 생성, 소멸되는 등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목(木)은 청(靑), 화(火)는 적(赤), 토(土)는 황(黃), 금(金)은 백(白), 수(水)는 흑(黑)을 연결함으로서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 가지 기본색이라 하고 오색 또는 오채(五彩)라 불렀다.’⁷⁾

‘오색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향	동	서	중	남	북
색채	청	백	황	적	흑
계절	봄	가을	사시(四時)	여름	겨울
오행	목	금	토	화	수
동물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오행설 색표(五行說 色表)⁸⁾

6)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p.34.

7) 정현진,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책거리 그림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논문, 2001, pp.18-19.

8) 박완용, <한국 채색화 기법>, 재원, 2002, p.14.

② 책거리의 색채

‘민화의 색은 오방색을 기초로 하여 민화의 주제 및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중에서 책거리의 색채표현은 대체로 여러 번 쌓아올려 정교한 색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진채를 사용하는 양식으로 그려졌다. 즉, 전통 회화가 수묵위주로 색채를 극히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민화는 색채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조색을 보면 적, 청, 황, 백, 흑으로 이러한 색채는 고분의 벽화, 단청, 옷의 색동 노리개 등의 장신구와 주로 행사 때 쓰는 기물과 음식의 빗갈 등 한국민족의 전통적인 색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실적인 색채표현보다는 고유색의 구조적 질서에 치중하고 주관적인 색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색은 다른 어떤 조형 요소보다도 보다 감각적인 것으로 민화에서의 색채사용은 화면에 등장하는 각 사물의 개별적 색상에 따라 가장 강렬하고 밝은 색채가 칠해진다.’⁹⁾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금은 가을, 결백, 진실 삶, 순결, 신성, 영광등을 뜻하고 목은 봄, 용, 벽사, 발복을, 화는 여름, 봉황, 잡귀와 병마를 막는 주술적의 미, 토는 중심, 환절기, 황룡, 존귀, 부귀, 풍요를, 수는 겨울, 거북, 어둠,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에 따른 오색은 방위, 계절, 의복, 음식, 숫자, 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의미되며 정방위의 오방색은 양의 기운으로 방위의 사이를 나타내는 오간 색은 음의 기운으로 평가한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단청이 오방색의 방위와 위치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색동저고리가 건강을 기원하거나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의미했던 것처럼 민화에 사용되는 오방색은 단순하게 색채의 조화를 고려하거나 증감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나타낸 것 뿐 아니라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담아 주술적, 기복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양광우, <18·19세기 책거리그림의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31.

2) 문양

‘책거리 그림은 장식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책의 건상이나 그릇, 종이 통에 빠짐없이 반복적, 대칭적인 무늬를 그려 넣음으로써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식적 효과는 책, 책장 등의 사각형그릇, 종이통의 원통, 원모양과 같이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단순성을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밀도 있는 균형성을 갖게 하는 조형적 효과를 얻는다.’¹⁰⁾

책거리 그림은 민화의 특성상 예술적 가치에 기반한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장식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던 특성에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무늬는 그림의 조형성을 높여 주는데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는 무늬는 색채의 의미처럼 그림에 내용을 부여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책거리 그림의 문양은 민화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벽사(辟邪), 길상(吉相), 삼다(三多), 오복(五福), 등의 주술적 의미를 가진다.

10) 오영선, <민화의 책거리 그림 연구>, 단국대학교석사논문, 2004, p.36.



작품1. <책거리>

모사작, 31x52cm, 옷칠지에 채색, 2008

소재속의 무늬 상징성¹¹⁾

초화무늬	극락세계의 표현 또는 이상향의 표출
국화무늬	길상의 징조, 절조의 상징
마름꽃무늬	능화, 소재의 병합을 위한 장식적 요소
구름무늬	신비성, 속세를 벗어난 풍류적 성격
당초무늬	식물의 덩굴과 줄기, 불교적 의미
연꽃무늬	광명의 꽃, 생명의 꽃, 불교적 의미
완자무늬	십자모양이 회전하는 우주, 태양을 상징, 기복의 의미
거북이무늬	귀갑(龜甲)무늬,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의미
돌림무늬	장명사상, 윤회(輪回)사상
돛자리무늬	기하학적 무늬로 바자문 또는 승석이라 불림

11) 양광우, <18·19세기 책거리그림의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41.

3) 시방식

① 사물표현의 평면화(平面化)



작품2. <책거리>

모사작, 30x50cm 옷칠지에 채색, 2007

평면적 구조의 조형적 특징은 각각의 사물이 서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음영을 통한 공간감이나 원근법등을 사용한 입체감을 무시하고 평면화되어 그려졌다는 점이다. 서책, 화병, 잎사귀, 꽃잎 등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의 영역을 최소화 하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평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면적 구조는 민화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된 방식이다.

이는 민화의 장식적인 특징으로 공간감이나 실제감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오방색을 기초로 한 색채표현에는 명암구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화에서는 단청이나 색동저고리에서의 평면적 채색기법과 같이 조형미를 통한 감상보다는 강한 색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던 점 이었을 것이다.

② 역원근법(逆遠近法)

역원근법(逆遠近法)은 가까이 있는 것을 크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리고 작게 표현하는 원근법의 반대개념이다. 원근법이 내가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는 시선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면 역원근법은 내가 관찰대상자로 뒤바뀌는 시선을 표현한다.

서양철학이 내가 중심이 되어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주로 동양철학에서는 내가 우리의 개념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겸손의 미덕에서 출발하는 시선법이라고 하겠다.

책거리에 나타난 역원근법(逆遠近法)처럼 전면이 좁고 후면이 넓게 그려진 그림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문을 숭상하는 의미의 그림으로 반대편에 있는 학문의 세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책거리에 담겨진 염원인 ‘입신양명’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다시점(多視點)

서양의 회화는 르네상스 이래 일시점의 원리로 접근하고 원근법에 의하여 매우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시점의 형태를 보인다. 서양에서는 나와 대상물이 분리된 대립적 관계의 기반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된다,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세잔은 1885년경에 그린 정물화 ‘배가 있는 정물’은 전통적인 일시점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세잔을 현대미술의 시작점으로 보는 미술사학자들도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입체파 피카소에게, 색채의 표현방법은 야수와 마티즈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그들은 세잔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반면, 동양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점이 이리저리 이동해서 보여지는

다시점을 사용해 왔다. 이는 동양에서는 몰아일체로 ‘자연’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고 모든 존재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존중하거나 숭배하며 상호 교감을 느꼈던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점은 물체의 전면을 바라보고 시점이동의 방법으로 표현된다.

책거리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처럼 다양하게 보이는 시점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책거리 그림에는 위치이동에 의한 형태의 변화, 관념에 의한 시점의 자유로운 표현, 상하, 좌우의 비대칭과 대칭, 시점에 반하는 역원근, 형태의 파격, 이중적인 구성과 동시적인 표현 등에 특징을 보여주며 서양화법에 보이는 입체표현의 방식도 나타난다.



작품3. <책거리>

모사작, 40x62cm, 종이에 채색, 2007

‘이렇게 한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그려진 대상물들은 현실적인 물체감 위에 여러 상황의 관념적 공간들이 동시에 펼쳐져 보이는 신선한 복합상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시점에 의한 사물포착 법을 몇몇 그림들에서 마치 현대의 큐비즘(Cubism)회화와 유사한 분

위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¹²⁾

‘큐비즘은 1907년부터 1920년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미술작품에 붙여진 명칭으로 1908년에 출품된 한 작품을 마티즈가 ‘큐브(Cube)-입방체’로 써 구성된 작품이라고 비평한 데서 비롯되었다. 큐비즘화가들은 보이는 그대로의 오브제를 그리지 않고 상상력 속에 나타나는 오브제를 평면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큐비즘은 원근법과 고전적 전통이라는 표현방법을 부정하고 보이는 대상을 관찰시점을 이동하여 평면인 캔버스에 한 번에 즉, 동시에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당시 상당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¹³⁾

2.2 현대의 욕망 표현

2.2.1 키덜티즘과 치유의 욕망

키덜트(Kidult)란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어린이의 감성과 취미를 지니고 있는 어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키덜트를 사회적 현상에서 살펴본다면 개인주의나 다원주의 같은 특정 현상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매니아화는 개인화의 욕구가 강한 소비자 계층에서 역설적으로 동화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다양한 개성의 분산을 막고 관련된 정보를 모으거나 흘러 보내는 역할을 한다. 키덜트 족은 이러한 매니아화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식상함의 대안으로 유행이라는 틀에 박힌 답답한 문화에 식상함을 느낀 대중들이 일종의 탈출구로써 나타나기도 한다. 키덜트의 또 다른 시각은 ‘애 같은 어른’이라 해서 단순히 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철없는 어른으로 치부해 버리고 심리적 퇴행

12) 김민수, <민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회화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05, p.18.

13) 한지혜, <음울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6, pp'.6-7.

현상인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하지만 ‘키덜트’와 ‘피터팬 증후군’은 엄연히 차별을 두어야 한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는 어른들이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남성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남성들을 D. 카일리 박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 칭하였다. 키덜트는 피터팬 증후군에 비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는데 피터팬 증후군이 대부분 자기 공상에 빠져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데 비해, 키덜트 측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동심을 간직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 이는 어른들의 긍정적인 일탈로 보며 그들의 내적 동기는 그 일을 성취나 완수 자체가 의미 있고 즐겁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생산되고, 미처 적응하고 익숙해질 틈도 없이 급변함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매일 반복되는 삶, 치열한 경쟁, 사회의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성인들이 힘듦을 느끼게 되고 현실에 만족도 하지 못하게 된다. 키덜트는 순수했던 때로의 회귀를 추구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만의 개성표현 수단으로 삼는 긍정적인 일탈로 볼 수 있다.’¹⁴⁾

이 키덜트문화가 최근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사회적 일탈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하게 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SNS의 영향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매니아적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같은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인 시선의 변화이다. 과거 이런 문화에 대해 어른답지 못하다고 바라보던 시선은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이같은 동심을 지닌 순수함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게 되었다.

셋째, 키덜트족을 위한 상품의 경쟁적인 출현이다. 키덜트족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제품들이 상업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매체는 이를 부추긴다. 이러한 키덜트문화가 신세대의 트렌드처럼 자리잡고, 상품성을 지닌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소유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었고 관련문화

14) 박은경, <키덜트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1, p.5.

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인 치유의 순기능이다. 과거 키덜티즘의 시작은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상에 빠진 성인들이 사회와 단절되거나 사회적 주변인이 되던 악순환이, 키덜티즘이라는 매니아적인 문화가 사회적인 한 부분으로 인정되면서 그들의 동심취향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정착은 키덜트족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 심리치유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2 몽타주와 이중노출의 결합

1) 몽타주

몽타주는 본래 프랑스어로 부분품조립이란 뜻이다. 즉 몽타주는 부분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그 일부를 잘라내 한 화면위에 붙여 합성하는 회화기법. 본래 몽타주는 영화에서 비롯된 기법인데, 영화에서는 개별적으로 촬영한 필름의 단편들을 시퀀스에 끼워넣거나 편집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몇 장의 사진을 따로따로 짜 맞추어 잔상 효과나 환기력에 의해 통일된 인상을 주는 방법을 가리키기도 하며, 최근에는 합성사진이나 짜맞추기 사진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미술에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소재나 이미지들을 잘라내어 맞추고 재구성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시키는 기법을 몽타주라고 한다. 영화에서는 몽타주한 것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지만 그림에서는 잘라낸 부분들을 한 화면 안에 병치시켜야 한다. 몽타주를 가장 선호하였던 것은 독일의 다다이스트들이었으며, 그들은 특히 사진을 소재로 한 포토몽타주를 고안해 내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잘라내어 한 화면에 결합한 포토몽타주는 러시아의 영화감독인 에이젠슈

테인의 몽타주 이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에이젠슈테인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장면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하거나 상극함으로써 유발되는 개념이 몽타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의해서 몽타주는 영화 기술에서 영화예술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포토몽타주 역시 서로 관계없는 사진들을 동일 화면상에 짜맞춘 결과, 사실적인 이미지들이 병치되어 의외적이고 기괴하기까지 한 비현실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기성의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환하여 전혀 다른 맥락에 놓이게 만듦으로써 화면에서 일관된 총체로서의 흐름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통회화에 반하기 위해 포토몽타주를 고안한 하우스만은 자신을 화가가 아닌 일종의 기술자로 자처하고 포토콜라주가 아닌 몽타주라고 지칭하였다. 한편 콜라주도 일종의 몽타주로 여겨지는데, 종이나 이차원적인 재료를 사용한 콜라주는 파괴에 콜레로 구분한다. 콜라주와 파괴에 콜레가 ‘폴로 붙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동사 ‘coller’에서 나온 것인데 비해, 몽타주의 어원인 ‘monter’는 본래 건축적 용어로서 ‘벽돌 등을 쌓다’라는 의미이다. 둘 다 서로 상반되거나 의미없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지만, 콜라주가 의미의 충돌이나 대립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몽타주는 그 대립을 통해서 일관된 의미를 조립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타주에서는 주로 사진이나 복제물, 인쇄물, 광고 등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입체적인 삼차원의 오브제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⁵⁾

‘특히 연극, 영화적 요소에서 출발하여 범 예술적 범위에 이른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은 예술의 본질에 입각한 초월적 접근으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범위의 예술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그는 서로 다른 두 요소들의 충돌이 새로운 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두 개의 상충되는 요소들이 결합해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원시적 사고과정인 ‘이미지 연상적 사고’에 의해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게 에이젠슈테인의 견해이다.’¹⁶⁾

본 연구자는 몽타주 기법을 살펴본 후 이러한 기법들을 회화에 적용하여

15) 월간미술 편집부 저,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53.

16) 김민수, <몽타주와 알레고리에 의한 습합책거리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11, p.24.

현대적 책거리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① 충돌montage

‘에이젠슈테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예술적 구성은 그의 이론 ‘충돌 montage’에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충돌 montage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29년에 쓴 ‘영화의 원리와 표의문자’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에이젠슈테인은 충돌 montage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 부분들 사이의 ‘충돌(collision)’ 혹은 ‘대립(conflict)’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montage를 특징지을 수 있는가? 충돌에 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두 조각들의 대립에 의해서” 충돌montage의 개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에이젠슈테인은 두 부분의 충돌이 새로운 개념을 발생시킨다는 그 유명한 가설을 설정하였다.’¹⁷⁾

이는 충돌의 결과로 두 부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요소들을 충돌 시키게 된다. 충돌montage는 책거리 구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montage 기법이다.

② 연상montage

‘연상montage의 핵심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주제들이 동질성을 지닌 액션으로 인하여 연상 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데 있다. 에이젠슈테인이 최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충돌의 원리는 정서적 내용들, 혹은 심리적 연상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상montage’이다. 그는 <파업>에서 대모하는 노동자들이 군인에 의해 살해되는 쏘와 도살장에서 소가 도살되는 쏘를 결합해 ‘도살’이라는 개념을 연상하게 되었다. 또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장면에서 겨울 동안 굳게 얼었던 얼음이 깨지는 쏘들과 노동자들이 대모하는 쏘들을 교차 편집해 굳은 얼음같은 압제체제가 노동자의 쫓겨난 것에 의해 해방의 시

17) 김용수, <영화에서의 montage 이론>, 열화당, 1996, p.136.

기가 왔음을 연상하게 하였다. 몽타주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나 은유적 의미를 전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 의미가 충돌에 의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각적 충돌, 내용과 형식의 대립, 움직임과 환각을 초래하는 현상 등 다양한 효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상몽타주는 에이젠슈타인이 생각하는 충돌몽타주의 핵심이다.’¹⁸⁾

2) 이중노출

‘사진의 촬영기법으로 두 화면을 함께 노출하여 100%가 되며 한 번 촬영할 때 노출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다시 촬영할 때 나머지 부분을 촬영하여 추가로 촬영한 부분이 반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촬영기법이다. 19세기의 일반적인 합성사진은 풍경에 인물을 조합하여 인화하거나 한 장의 사진에 다른 하늘을 배경으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즉, 노출을 달리하여 각각 두장을 촬영한 후 적정노출부분을 결합하는 방법이었는데 완벽한 노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초기 사진술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당시 회화주의사진과 자연주의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합성사진은 사진이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문제와 함께 표현기법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¹⁹⁾

연구자는 이를 비단같은 반투명소재를 이용하여 레이어(layer)를 쌓는 구조로 이미지를 중첩시키되 투명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18) 김민수, 앞의 책, p.24.

19) 한지혜, 앞의 책, pp'.3-6.

Ⅲ. 작 품 분 석

‘욕망’이란 사전적 의미로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욕망은 소멸되지 않는 대중의 관심사였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는 소시민적인 작은 소망에서부터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귀영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책거리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함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연구하였다. 세계화의 추세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교류하면서 최근에는 회화에서 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동, 서양의 경계와 장르구분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되고 경계가 모호해 질수록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연구자는 책거리의 현대적인 표현에서도 채색재료와 방법은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재료는 채색화재료인 건, 분채, 붕채, 석채, 아교, 호분만을 사용하였다.

3.1 전통책거리 모사 작품

책거리는 궁중화로 시작되었지만 대중화되는 지속적인 전개과정에서 민화의 다른 주제들과 융합되는 복합형식으로 발전되었으며, 정형화된 형식의 책거리에서 비정형화의 자유로운 책거리로 민화책거리는 후기로 갈수록 다채로운 변형과 자유로운 조합을 보여왔다.

연구자는 모사를 통해서 책거리 그림의 변천과정 및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현대적 책거리의 창작에 영감을 받게 되었다.

책거리그림의 유형적 측면에서 보면 궁중화로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사실적인 입체표현인 서양화법에 입각한 실제감이 돋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정형성은 후기로 갈수록 자유로운 시형식을 갖고 변화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1.1 정형적 책거리



작품4. <책거리>, 경기도박물관 소장,
모사작, 180x85cm, 종이에 채색, 2008

작품4는 책장에 여러 완상물이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책거리는 조선시대 정조가 방안에 장식해 두고 늘 책을 가까이 하듯 느꼈다는 일화가 있으며 왕실에 그림을 조달했던 자비대령 화원을 뽑을 때 시제로 자주 등장했던 그림일 정도로 왕실에서 궁중화로서 널리 그려지고 장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란휘장을 걸어 올린 상태로 거대한 책가가 드리내보이게 하고 있으며 웅장해 보이는 스케일이 특별하다. 책가는 아랫단에는 문갑이 달리고 중, 상단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그 안에는 책을 비롯하여 화병, 벼루, 문방구, 꽃 등이 진열되어 있다.

이 그림은 당시 서양회화의 영향을 받아 선투시도법과 음영법이 표현되어 있으며 유소에 달린 구슬 장식에는 하이라이트까지 있고 칸막이나 휘장에도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준 것으로 보아 서양화법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궁중의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궁중을 중심으로 상류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림이고 18~19세기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동서화취미를 갖고자 했던 조선시대 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그림이기도 하다.

3.1.2 비정형적 책거리



작품5. <호피장막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모사작, 100x76cm, 종이에 채색,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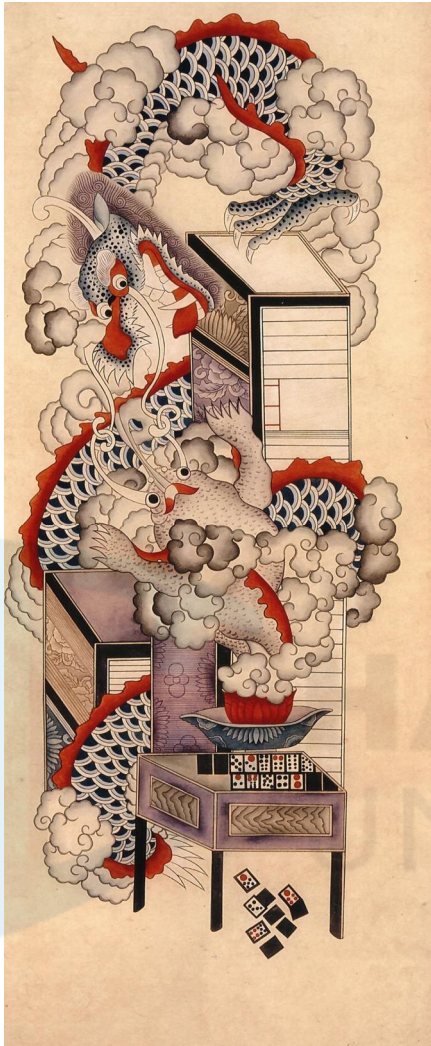
호피장막도는 호랑이 가죽을 펼친 사이로 서재의 모습이 보이는 형태의 그림으로, 문무를 겸비한 선비가 사냥을 통해 자신이 잡은 호랑이 가죽을 걸어 놓은 서재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세필로 호랑이의 털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여 미학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호피장막도는 애초 유교적 성격과 문인중심의 취향을 가진 책거리그림이 그 흐름을 이탈하여 벽사적 성격을 갖는 호피도와 결합하는 모습은 충돌적 몽타주에 해당한다.

에이젠슈테인에 의하면 서로관련이 없는 두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발생시키는 것을 충돌몽타주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호피장막

도 역시 유교적 요소와 벽사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작품6. 작품7. <책거리>, 영월박물관 소장,
모사작, 32x90cm, 옷칠지에 채색, 2009

용 그림과 책거리가 몽타주 된 이 그림은 연상몽타주의 예로서 주제가 용과 봉황일수도 있고 책거리일 수도 있게 보인다. 작품6에서는 위의 용과 아래의 두꺼비가 책을 감싸며 접촉을 하고 두 영물의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 용의 의미는 승천한다는 것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른다는 의미, 즉 출세이고 두꺼비의 의미는 재산을 늘리고 지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임신양명과

출세를 상징하여 책을 가까이 하면 영물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7의 봉황은 지절(志節)이 굳고 품위를 지키는 새로 학문을 통해 으뜸으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한다.

3.2 다양한 조형기법을 이용한 창작 작품

연구자는 전통의 프레임에 현대의 오브제를 결합하여 현대인의 부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명품은 언제부터나 우리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사치스럽지만 이를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로 명품의 화려한 오브제와 로고(샤넬, 루이비통 등)를 그리거나 책의 문양을 현대적인 문양으로 대체하여 그려줌으로써 과거와 다른 현대의 시대상과 함께 현대인의 욕망과 내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책’은 현대에서만 볼 수 있는 무늬와 전통 책거리의 무늬가 어우러져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다른 시공간에서 존재하던 무늬를 함께 배치함으로서 새로운 연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림의 밀도를 높이고 화려하게 하며, 장식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책거리그림에 현대적 세련미를 부여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책거리그림은 기능적으로 장식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책의 건상이나 그릇, 종이 통에 빠짐없이 반복적, 대칭적인 무늬를 그려 넣음으로서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식적 효과는 책, 책장 등의 사각형그릇, 종이통의 원통, 원모양과 같이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단순성을 보충하고 패턴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으로 밀도 있는 균형성을 갖게 하는 조형미를 얻는다.

책거리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다양한 상징적의미를 담고 있다. 책거리그림을 표현하기 위해 책거리그림의 문양을 그대로 차용(借用)한 경우도 있다. 책거리그림 속 전통문양들이 공간을 채우고 장식성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전달하는 매개체(媒介體)구실을 하는 상징적 조형물인 것처럼, 연구자의 작품에서의 명품로고문양, 현대적 기하학무늬 또한 장식성과 단순성의 보충적 기능 외에 현대인의 시각에서 사회적인 성공의 염원과 부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3.2.1 책거리 소재의 차용과 현대 기물의 응용

민화에 나타나는 기물은 오방(五方)색을 기초로 하여 민화의 주제 및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고 배치되었다.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 청(靑)은 주술적인 의미의 측면에서 귀신을 물리치거나 화(禍)를 면하고 복(福)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또한 청색은 물, 식물 등의 생명을 상징하며 창조, 불멸, 정직,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8. <현대인의 책거리>, 20x28cm, 비단에 채색, 2015

작품8)의 주조색은 청색으로 오방색중 하나인 청색의 이러한 의미를 담아 작품에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색채표현은 칠을 여러 번 쌓아올려 정교한 색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진채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패션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물들은 현대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적 프레임 안에서 재현되었다.

청(靑)은 물, 바다, 식물, 창조, 불멸, 희망등을 상징하고 주술적으로는 귀신을 물리치거나 화(禍)를 막고 복(福)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작품 속 사물인 시계, 목걸이등의 현대적인 장신구는 매체가 우리에게 소비를 통해 성공의 쾌감을 쟁취하라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상품에 관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는 전통의 프레임과 주조색인 청색의 의미를 바탕으로 현대기물을 배치함으로서 현대적인 성공의 잣대와 기복의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3.2.2 전통책거리와 현대문양의 융합

전통책거리에서 문양과 무늬는 오방색의 의미처럼 그림에 내용을 부여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만들며 조형적 특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벽사(辟邪), 길상(吉相), 삼다(三多), 오복(五福), 등의 주술적 의미를 가진다.



작품9. <현대인의 체크거리>, 30x36cm, 비단에 채색, 2015

작품9에 표현된 보병(寶瓶)은 예로부터 원래의 장식적인 가치 외에도 평안을 보존하는 의미인 보평(保平)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선조들은 꽃들이 아름다운 화병에 꽃힌 모습을 단순한 화병안의 꽃으로 보기보다는 이 모습을 화합과 평안의 상징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민화에서 화병은 평안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란꽃이 화병에 꽃힌 것은 집안이 평안하고 부귀영화와 화목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전통의 프레임에 비단 뒤로 비치는 말, 입술, 물리팝, 지갑 등의 모순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하단부의 루이비통로고는 ‘현대인의 부에 대한 욕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체크거리그림의 기물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현대인의 평안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과거와 달리 물질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부에 대한 욕구의 상징물로서의 직접적인 표현을 로고로 대신하였다.



작품10. 작품11. <현대인의 책거리>, 55x40cm, 옷칠지에 채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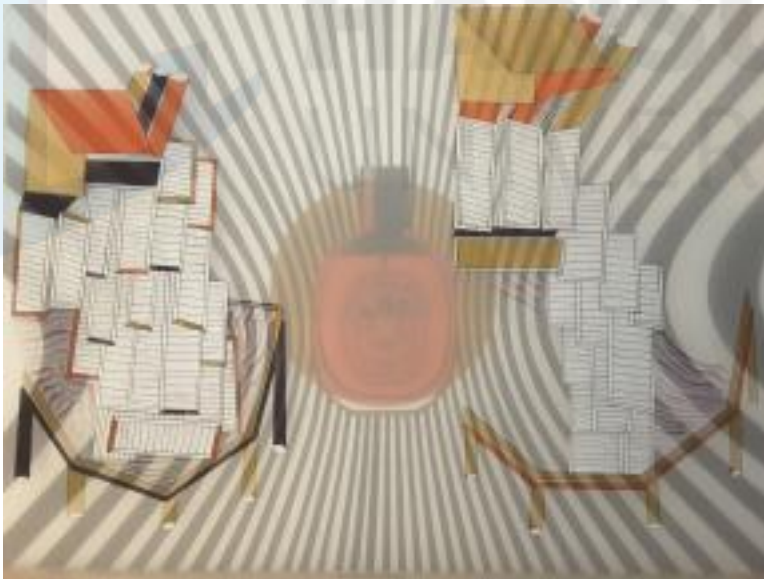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명품에 대한 인식은 한 마디로 욕망의 표현이자 충족이다. 욕망을 최대한 우아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명품인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명품구매는 자신의 부를 과시함과 동시에 새로움과 재미를 찾기 위한 또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놀이로도 생각되고 있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하기위해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서 쇼핑을 즐긴다는 것은 감각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숨어있다.

작품10과 작품11은 화병에 명품로고무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전통민화에서의 평안을 나타냈던 기물인 화병과 여기에 장식된 문양이 부귀영화를 의미했던 것처럼 현대의 명품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했다.

3.2.3 현대 기물사진과 책가도 문양의 중첩

기존의 책거리 형식과는 달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비단과 사진이미지를 더한 이중 겹구조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중첩하고 이러한 노출의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코자 하였다. 비단이 가진 반투명성을 이용하여 주제와 배경이 분리되지 않은 이미지의 구성에서 시선을 교차시킴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도였다.

본인이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그 출발은 현대인의 소통창구인 SNS 및 잡지나 그 밖의 이미지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매체에서 이미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사진이미지들을 수집하는 데에 있다. 가지고 싶은 고가의 명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잘 읽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작품 속 오브제로써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작품12. <현대인의 책거리>, 60x42cm, 비단에 채색, 2016

책은 전통의 의미처럼 학업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하며, 여기에 향수의 향기를 담아 멀리멀리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몽타주 한 것이다. 작품12는 특히, 현대인이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욕망을 향수라는 기물로 표현해 보았다. 바탕은 반복된 스트라이프를 이루어 중심으로 시선을 잡는다. 시선의 중심에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로고를 상징화되어 표현되었고 여기에는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현대여성의 욕망이 숨어있다.

작품13과 작품14는 성공을 꿈꾸는 현대여성의 욕망을 높은 구두와 지갑, 팔찌 등 명품 악세사리를 통해 표현해 보았다.



작품13. <현대인의 체크거리>, 42x55cm, 비단에 채색, 2016



작품14. <현대인의 책거리>, 43x58cm, 비단에 채색, 2016

높은 굽의 구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현대의 여성상을 의미하고, 지갑은 경제적 자립과 부를, 팔찌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2, 작품13과 작품14는 책거리그림의 기물과 현재의 기물이 겹구조를 이용하여 같이 묘사되어 있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공간과 함께 세대를 이어온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자 했다.

위 작품들은 민화의 전통적인 책거리그림에서 상징하는 부귀영화나 길상적인 의미와 같은 주제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 기물들이 가지는 주제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도 현대에 맞게 변용되어 표현되었다. 이는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연상적인 의미로 구성되어져 화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을 한다.

다양한 현대의 정물들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다양한 명품(名品)들이 등장한다. 작품 속에 가득한 명품들은 현시대의 성공과 부의 과시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과거 고매한 학업에 정진하였던 격조 높은 선비의 사랑방에 놓여진 기물의 재현 같기도 하다.

이는 민화의 길상적 상징성을 재현 한 것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富貴榮華)의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기위해 명품이미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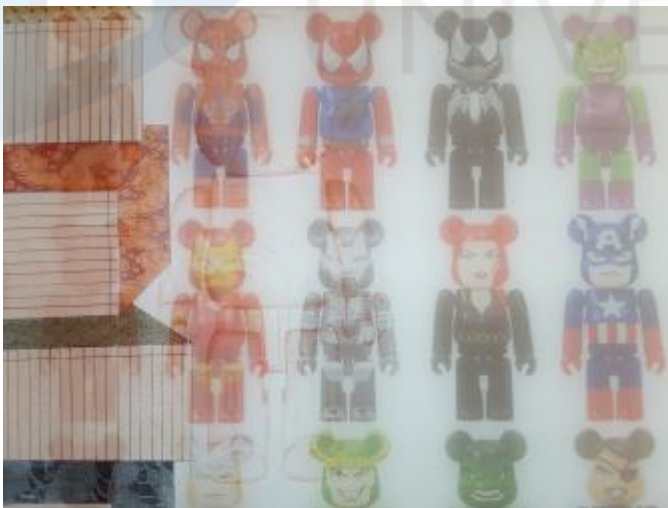
기존의 민화에 등장하는 부귀를 상징하는 도상들과 현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성공(成功)과 부(富)에 관한 다양한 상징물들을 통하여 현대에 맞게 그 상징성을 해석한 형식의 작품이다.



3.2.4 Lighting과 이중노출을 이용한 작품



작품15. <현대인의 책거리>, 34x41cm, 비단에 채색, 2016



작품16. <현대인의 책거리>, 50x43cm, 비단에 채색, 2016

작품15와 작품16은 다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과거와 현대의 조화, 즉 과

거로부터 현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유희(柳僖)의 욕구를 표현했다.

과거에 학문이 선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희의 수단이었다면 현대에는 새로운 문화집단이고 ‘어린이’라고 표현되는 키덜트족에게 치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장난감의 한 종류인 베어브릭을 선택하여 작품에 적용하여 보았다.

책거리 그림에 키덜트족들이 열광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캐릭터인 베어브릭을 그려 넣거나 사진이미지를 이용하였고 사진기법의 하나인 이중노출처럼 의도적으로 이중의 겹구조를 사용하고 배치하여 반투명하게 표현하여 시공간의 차이와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의 성인들이 추구하는 판타지에 관한 욕구를 전달하고자 했다.

바쁜 일상속에서 가끔 동심(童心)으로 돌아가 놀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상징하고자 했으며 비단뒤로 보여지는 흐릿한 이미지는 추억이나 꿈속의 상상을 나타내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베어브릭의 모습들은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 LED패널을 이용하여 조명을 설치함으로서 빛을 통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이처럼 밝은 동심을 상상하게 함으로서 놀이, 상상력의 유희를 담아 책과 베어브릭의 오브제를 편집하고 재배치하였다.

전통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독립적인 형식의 그림으로 구성하였고 그 결과 민화의 이미지보다는 다른 의미의 그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완성되었으나, 책거리의 문양을 그대로 차용한 점과 의미 또한 전통책거리에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책거리로 볼 수 있겠다..

책은 오브제로서의 책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고, 채색 기법으로는 물감의 농도를 흐리게 하여 여러 번 칠하는 중첩기법을 사용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자는 전통 책거리 그림의 기원과 표현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방법을 적용하고 현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기물을 배치함으로써 현대적으로 변용된 책거리 그림으로 작업해 보았다.

전통 책거리 그림이 선비들의 사랑방 정경이나 일상생활 용구를 화면에 조화롭게 집약시킴으로서 당시의 생활문화를 반영해주고 당시의 시대적 미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처럼 본 연구자의 책거리 그림 또한 현시대의 생활문화와 현대인의 욕망을 가능할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책거리 그림은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학문숭상과 학업성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문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 읽기를 즐기고 학문의 길을 추구하던 시대적인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책거리가 민화의 한 장르로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다양한 기물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학문이외에도 기물이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부귀, 장수, 다산, 평안, 화목 등의 대중들의 공통적인 염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책거리의 역사속의 의미와 기능을 주목하고, 이를 현시대에 맞게 풀어내기 위해서 책거리 그림의 소재와 조형적인 변화를 주어 현대 대중의 공통적인 욕망과 관심사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과거로부터 현시대까지의 대중의 욕망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책거리 그림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으로 표현 하는데에 두 가지를 주목했다.

첫째는 현 시대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소망은 그대로 라는 것이다. 소원성취, 학업, 건강, 재물, 화목, 번창등 역사속의 책거리에서 나타났던 대중의 염원은 현대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대가 물질만능주의로 변모하면서 과거에 책거리가 학업성취를 통한 성공에 중심이 있었다면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기물이 성공을 대변해 주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양반제도로 인한 신분사회로 학문적 성취를 통한 성공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와 부를 보장하였다면 현재는 학문적 성취가 없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명품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

과거 금, 은 같은 장신구나 비단 같은 옷감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성공한 자의 신분을 드러내었다면, 현시대는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면서 신분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방식이 변화되었다. 현 시대는 명품 브랜드에 사람들이 환호한다.

연구자의 작품에는 책거리 그림에 있는 소재와 함께 현대의 사물인 명품가방, 향수, 고급차키 등이 그려져 기복적인 의미 외에 현대인의 부의 상징과 소유에 대한 성취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문양은 책거리 그림 속 전통문양들은 그림의 단순성을 보완하고 밀도를 높이고 장식성을 줄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면 연구자의 작품 속 문양들은 책거리 그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명품로고 및 현대적 기하학 무늬는 장식성과 단순성의 보충의 기능 외에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과 현시대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회상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현시대의 특징인 키덜트 문화를 통해 현대인의 치유의 욕망을 책거리를 통해 나타내고 이중 겹구조를 활용하거나 몽타주기법을 이용하여 새롭게 은유적 연상을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본 논문에서 전통미술의 계승 발전의 방법에 있어서 차용과 변용을 통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현대회화를 접목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방법을 접목시켜 전통미술 계승과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

책거리 그림의 조형성에 관한 학술자료 및 참고문헌이 충분치 않은 만큼, 책거리그림과 민화를 심층 연구하여 본인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미술자료 no66, 2001.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허 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박완용, <한국채색화 기법>, 재원, 2002.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1996.

정병모,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 박물관, 2012.

월간미술 편집부 저,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1999.

2. 논문

정현진,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책거리 그림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오영선, <민화의 책거리 그림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4.

양광우, <18·19세기 책거리 그림의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0.

김민수, <민화의 이미지를 이용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회화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05.

한지혜, <음율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6.

박은경, <키덜트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1.

송신애, <책거리 그림의 조형성과 현대적 표현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8.

김민수, <몽타주와 알레고리에 의한 습합책거리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11.

ABSTRACT

Study of the Expression of Desire using Multiple Viewpoints of Chaekgeori, Montage and Double-exposure Technique of Modern Art

Lee, Ji-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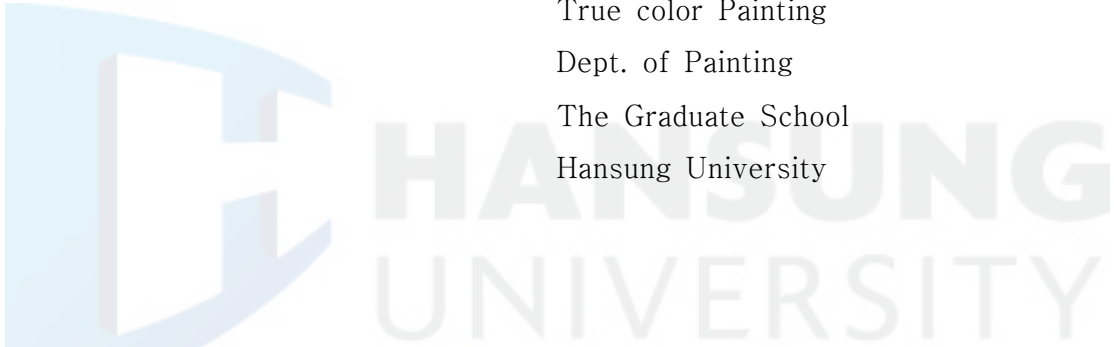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 P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stylized blue and white graphic.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HANSUNG UNIVERSITY',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Chaekgeori (Painting of stationery or writing materials and books) is a genre of folk painting, which is a still life style painting that combines and arranges a pile of books and four treasures of the study, appropriately.

Paintings that represented wishes and hopes of the most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re folk paintings, and of them, Chaekgeori,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Chaekgado (Painting of bookshelf) Munbangdo (Painting of books and stationery) or Chaektakmunbandgo (Painting of desks, books and stationery) is a painting that shows the view of classical scholars' reception room with subject matters such as various objects, containers, vegetables and fruits as well as books and stationery, through which we can infer the phases of the times along with the tastes

of literary person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lso, as folk painting Chaekgeori became popular since the late Joseon period, painters have presented wishes such as wealth, health, longevity, fertility, harmony, and wish-fulfillment, metaphorically, drawing various objects. For this reason, it was perceived as a symbolic picture implying the Shamanistic significance of Gibokchuksa (attracting good fortune and expelling evil spirits) among ordinary people's simple hopes and the public that dream of wealth and honor along with scholastic achievements.

Chaekgeori has a very remarkable formative characteristic that it used the five colors determining mutual generation and restriction and the coloring technique of the Oriental philosophy of finding one's bearings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the coloring, and used multiple viewpoints in which various viewpoints coexist in a single frame, which shows complex ideological spaces simultaneously in composition. It seems that multiple viewpoints were influenced by the Oriental philosophy of Mulailche meaning that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I are one.

An imagination concerning how to express the wishes of the public contained in old folk paintings in modern folk paintings became a momentum for the researcher who studied traditional painting to start this project, in addition to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 traditional image, which are just seen familiar, and the artistic value of repetitive and exaggerated shapes and unconventional compositions, sometime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show the phases of the times incorporating a new expressive method of putting "desires and wishes of modern people" in Chaekgeori and reinterpreting and arranging modern objects.

[KEYWORD] Chaekgeori, Multiple Viewpoints, The five colors of directions, Fortune, Montage

